



서유럽 5개국을 가다

3 스위스

시계, 은행가, 초콜릿, 치즈. 이런 관에 박힌 문구는 스위스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스위스에 관해 '거대함과 질서의 결합'이라고 한 괴테의 표현은 지금도 유효한 듯 하다.

스위스는 유럽의 중앙부에 있어 동쪽으로 오스트리아, 서쪽으로 프랑스, 북쪽으로 독일, 남쪽으로 이탈리아와 접해 있어 4개국의 문화를 볼 수 있다.

산지가 스위스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산지의 30%는 목초지와 방목장으로 32%는 삼림지, 10%는 경작지, 28%는 기타 용도로 알뜰하게 사용되고 있다.

스위스 중부와 베른 오버란트는 많은 여행자들이 진정한 스위스라고 여기는 지역이다. 산과 호수, 소의 목에 단 방울, 알프스 마을 등 전형적인 스위스의 특징이 풍부한 이곳은 700년 전 스위스가 국가로서 첫 출발을 한 곳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스위스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루체른에서 필라투스과 티틀리스로 등반하기도 좋다.

대자연의 노래 요들송 들리세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스위스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루체른의 마을 풍경. 예쁜 염서 같은 전원풍경이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유혹한다.

초원·숲·호수의 나라

▲루체른-마을의 건립은 1178년이라고 알려져 있고, 1332년에 원래 3개 주에 이은 4번째 주로 스위스 서약 동맹에 가입한 아름다운 중세도시다.

▲티틀리스(Titlis)-중부 스위스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틀리스(3020m)는 전망도 훌륭하지만 액션을 즐기는 이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는 곳으로 연중 눈과 빙하를 체험할 수 있다.

티틀리스 정상에는 빙하 리프트인 Ice Flyer와 빙하공원, 빙하등골 뿐만 아니라 눈썰매, 번지점프, 산악자전거 타기 등 여러 체험거리로 가득하다.

3020m정상에 오르면 온통 새하얀 백색세계, 자연의

경외감에 일순 숙연해진다. 선글라스를 뚫고 들어올 듯 한 설원에 반사된 햇빛은 백색 광공이 몰아치고 있는 듯 하다.

3020m 정상 새하얀 백색세계

▲빈사의 사자상-스위스 하면 목가적인 전원풍경과 함께 평화로움을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다.

빈사의 사자상은 루체른의 빙하공원 옆에 있는 작은 공원에 위치해 있다. 자연석에 새겨져 있는 이 조각은



티틀리스 정상

루체른 전원풍경

카펠다리

1792년 프랑스 혁명 때 파리에서 루이 16세가 머물던 궁전을 지키다 전멸한 800명의 스위스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 졌다.

▲카펠다리(Chapel)-유럽에서 가장 긴 목조다리(200m)인 카펠다리는 루체른의 상징으로 14세기 초에 세워진 지붕 있는 목조 다리다.

/스위스=글·사진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영화안내 m-o-v-i-e-s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 런던역극장

포세이돈

엔터시네마

다빈치 코드

콜롬버스 시네마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아주 특별한 제안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중랑구토개개발컨설팅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대지공인중개사